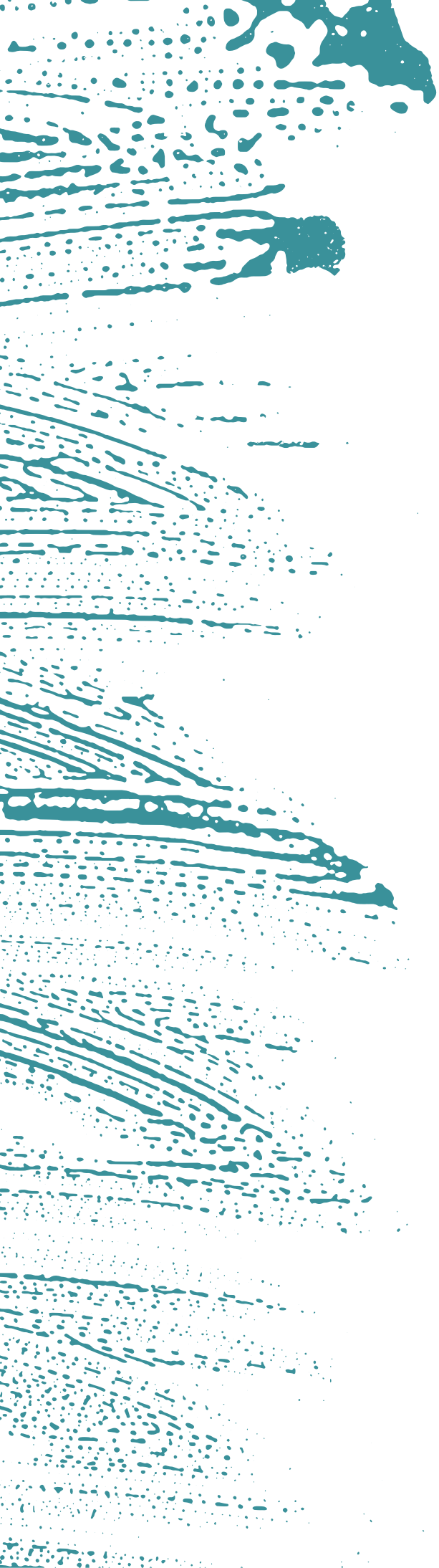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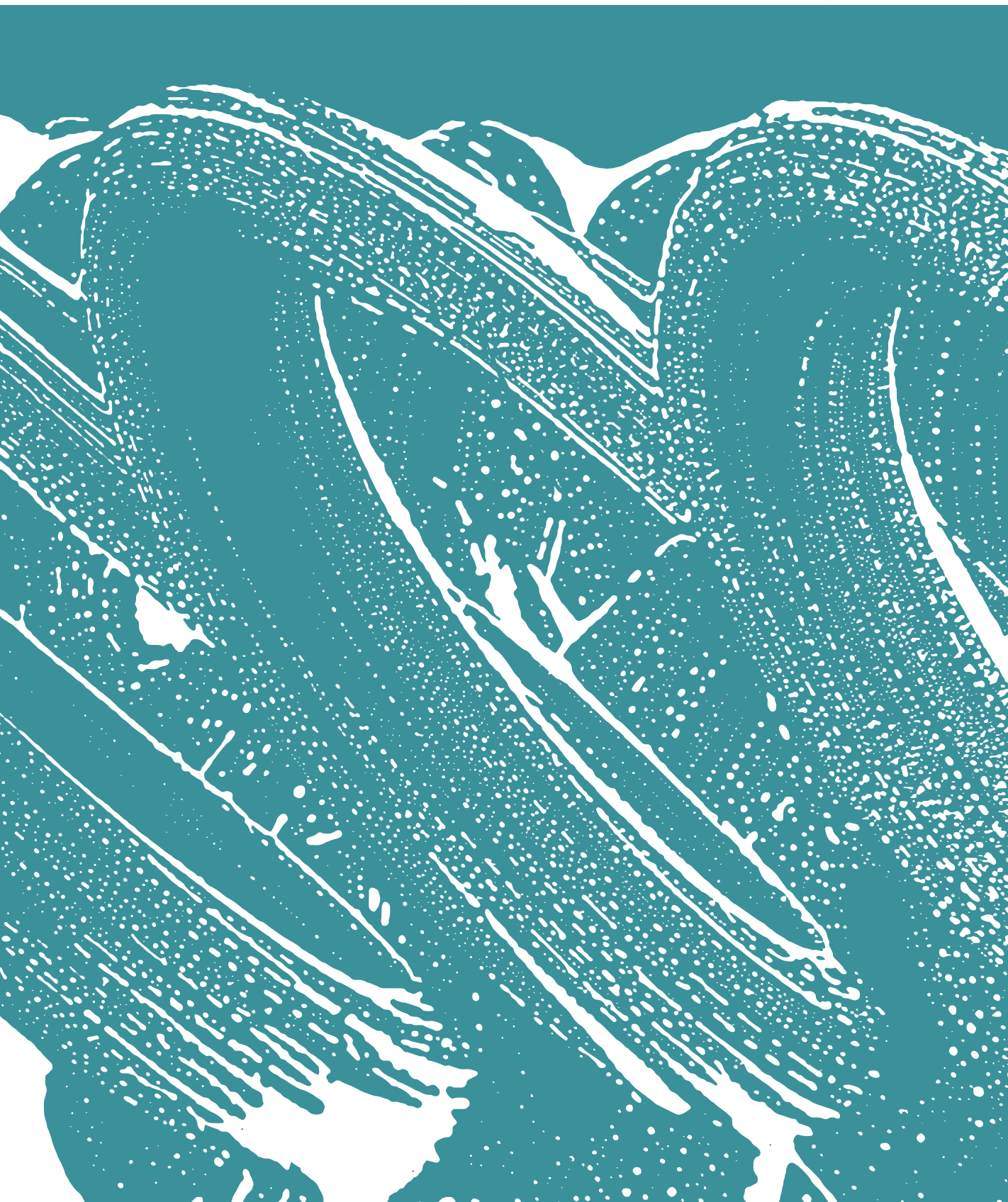


# 독해 분석







**contents.**

## 표상하기

p014 표상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도약 독해

p015 표상이 안 될 때는 물음표 띄우기

p027 기억이 안 될 때는 암기 시도하기

## 연결하기

p033 범주 #상하대등과 공통차이 #필연성과 가능성

p043 방향 #논증 #인과

p086 반복 #단순 반복 #변형 반복

## 요약하기

p098 문단 요약하기

p098 글 요약하기

## 독해가 정확히 무엇일까?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 독해력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독해의 의미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만의 정의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독해의 의미에 대해 그다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이 책에서 정의하는 독해의 의미를 받아들이시길 권장합니다.

독해의 사전적 정의는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함’입니다.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정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사전적 정의에 대해 평가하고 임의로 정의한다는 거냐라는 지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사전적 정의라는 것이 항상 최적의 정의는 아닐 수 있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편의에 따라 임의로 정의하는 것이 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독해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독해란 ‘문자로 이루어진 글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글이 담고 있는 것을 표상하고 사고하는 정신적 작용’이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문자로 이루어진 글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인다는 서술은 너무나 당연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글이 담고 있는 것’, ‘표상’, ‘사고’ 정도일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글이 담고 있는 것’은 ‘글’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 둘은 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비유에 따르면 ‘글이 담고 있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글’은 ‘그에 대응하는 그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글이 담고 있는 것’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글’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이고 이에 따라 ‘글이 담고 있는 것’도 명시적이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러한 명시적 정보를 뇌 안에서 모델링하는 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한편 명시적 정보인 ‘글이 담고 있는 것’을 통해 글에서 드러나지 않은 암묵적 정보를 뽑아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며 추론은 ‘사고’의 일종입니다.

다음의 일상적인 대화를 읽어봅시다.

윤우: 나 그것 좀 쥐.  
나진: 자. 근데 이거 0.3mm라 부러지기 쉬워.  
윤우: 괜찮아. 나 손이 섬세해서.  
나진: 근데 뭐 쓸려고?  
윤우: 한국 사회가 규정한 중등 교육의 궁극적 교두보에서 어엿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진: 뭐야, 약 빨았나? 제정신이 아닌 거 같은데?  
윤우: 요즘 영어 기출만 봤거든. 너도 일주일 동안 영어 기출만 보면 이렇게 돼.  
나진: 병신..

→ 윤우가 나진에게 요구한 ‘그것’은 0.3mm라 부러지기 쉽다는 나진의 표현, 손이 섬세해서 괜찮다는 윤우의 표현, 이것으로 무엇을 쓸 거냐는 나진의 표현을 단서로 했을 때 ‘샤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우가 표현한 ‘한국 사회가 규정한 중등 교육의 궁극적 교두보’는 중등 교육이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의미한다는 점과 여기에서 어엿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수학 문제를 풀 거라는 윤우의 표현을 단서로 했을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의미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과학적인 논증문을 읽어봅시다.

사람은 일종의 발전소다. 사람은 물을 마시고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호흡을 통해 산소를 몸에 공급함으로써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소화 과정을 통해 작아진 영양소와 산소와 물을 화학 반응시켜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ATP에 저장하도록 한다. 세포 호흡의 결과로 얻어진 수많은 ATP가 세포 곳곳을 돌아다니며 분해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여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화력 발전소가 유기 화합물을 태워 그 열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과 위의 과정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 첫 문장에서 사람은 일종의 발전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는 뒷부분을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가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람은 일종의 발전소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즉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고 첫 번째 문장이 주장인 셈이죠.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 또한 사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세포 내부에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생물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논증의 주장은 다소 편협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주장의 주어는 사람보다는 세포 내부에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진핵생물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와 같은 비판도 사고의 일종입니다.

지금까지 짧게나마 ‘글이 담고 있는 것’, ‘표상’, ‘사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글이 담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다음 지문을 읽어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2학년도 수능 발췌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글이 담고 있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것 혹은 그것을 분석하거나 조합한 것’이고 ‘글’은 ‘그에 대응하는 논리적 그림’이라고 이해해 봅시다.

오감을 통해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글로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은 것도 글로 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세계를 모델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제 처음 간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을 오늘 떠올릴 때, ‘레스토랑 내부는 기억자 모양이었고, 맛있는 냄새가 났고, 고급스러운 레드 카펫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테이블은 원형이었으며, 남자 웨이터는 친절했고, 스테이크와 오일 파스타는 맛있었다’와 같이 단순화된 단서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떠올립니다. 어제의 실제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떠올린 어제의 경험은 단순화된 것입니다. 단순화된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제의 실제 경험은 오늘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화된 정보’가 중요한데 이 단순화된 정보를 분석하거나 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원형 테이블에서 원형이라는 요소와 빨간 카펫에서 카펫이라는 요소를 분석하고 조합하여 원형 카펫이라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친절한 스테이크’와 같은 얼핏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글이 담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세계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거나 조합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글이 담고 있는 것’에 대해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이 담고 있는 것’은 구체 개념과 추상 개념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개념들을 또 구체성을 가지느냐 추상성을 가지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상당한 난해함에 처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체 개념과 추상 개념의 분류 기준은 감각 가능성의 여부이고, 구체성과 추상성의 분류 기준은 의미 자질의 다소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자유라는 두 단어 중에 감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골라봅시다. 학교는 감각할 수 있고 자유는 감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제가 의도한 분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학교라는 개념 자체는 감각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란 ‘한 무리의 개개의 것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빼내어 새로 만든 관념’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학교를 통틀어 ‘학교라는 무리의 개념’은 감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치만 제가 의도하는 바는 ‘학교라는 무리의 개념’ 중에서 ‘개개의 학교’를 떠올려 볼 때 그것은 감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무리의 개념에서 개개의 자유, 가령 나의 표현의 자유를 떠올려 볼 때 개개의 자유를 감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교는 구체 개념이고 자유는 추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분류 기준을 적용해 봅시다. 그전에 의미 자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덧붙이겠습니다. 의미 자질이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의미적인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가령 ‘총각’의 의미 자질을 분석해보면 [인간], [남자], [성숙], [미혼]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 자질을 모두 합하면 ‘총각’이라는 개념이 되죠. 의미 자질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구체적이며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미 구체 개념인데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고?’처럼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체 개념이라고 해서 모두 구체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대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은 의미 자질이 추가되면서 전의 문장보다 구체적이고, ‘나는 서울대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은 의미 자질이 더 추가되면서 이전 문장보다 구체적입니다. 이번엔 이런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군가 자유에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중 어떤 자유를 원하냐고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나는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면 같은 추상 개념이지만 전보다 덜 추상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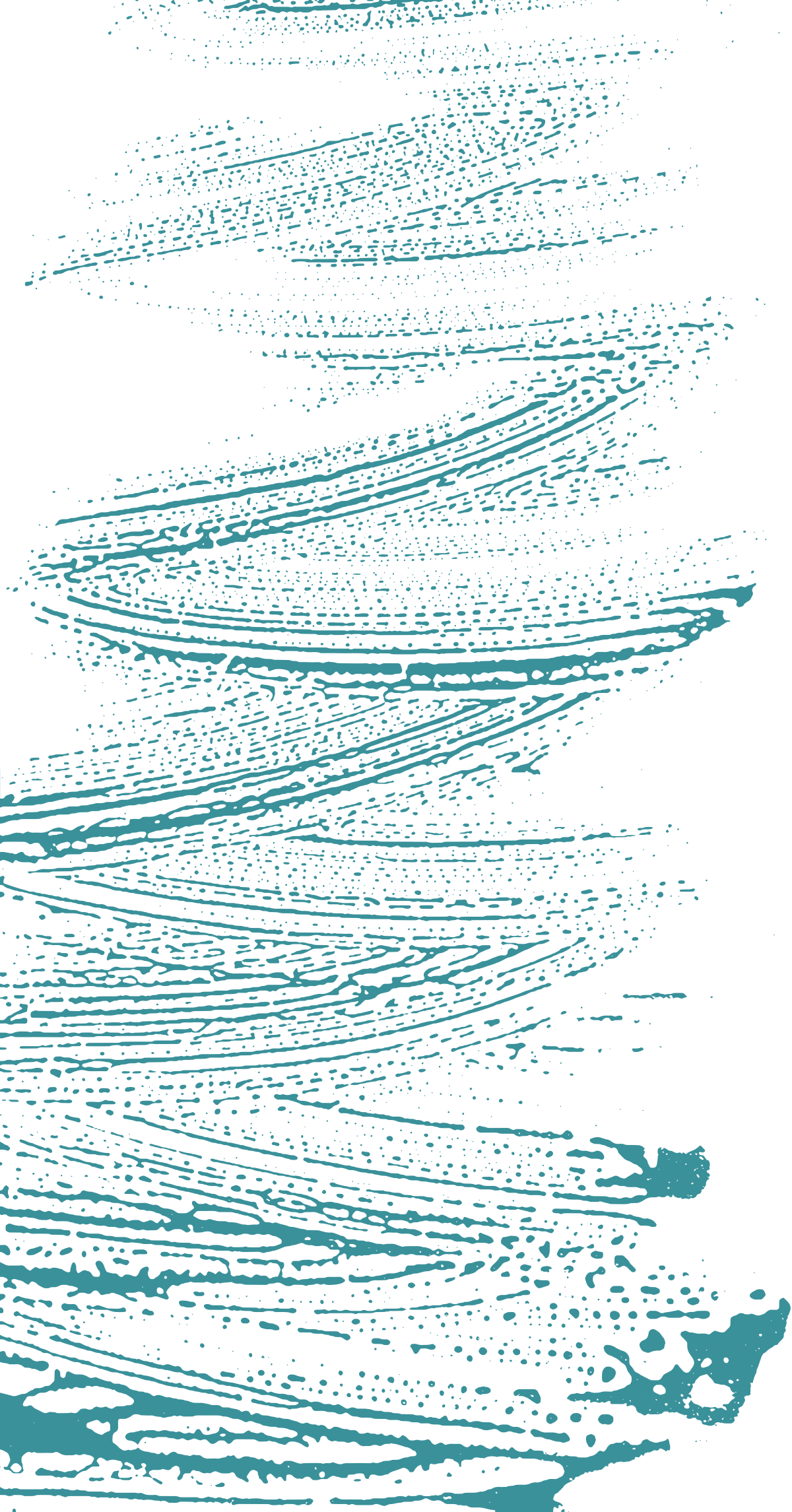
앞으로 다룰 내용에서 배경지식이 되어야 하는 정보가 있으므로 '개념'에 대해 더 다뤄보겠습니다. 개념은 '한 무리의 개개의 것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빼내어 새로 만든 관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한 무리에 속한 개개의 개수 혹은 그 범주의 크기를 '외연'이라고 하고 공통적인 속성을 '내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동물에 포함되는 개체의 개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람에 포함되는 개체의 개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사자, 코끼리 등 다른 동물들이 동물이라는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동물과 사람의 내포는 어떻게 될까요? 동물은 동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성(理性)을 가지고 있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는데 포함관계에 있는 개념들은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외연은 넓어지고 내포의 개수는 감소하며, 하위 개념으로 갈수록 외연은 좁아지고 내포의 개수는 증가합니다.

참고로 외연이 하나인 개념을 '단일 개념'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뉴턴, 모나리자 같은 단일 개념은 내포의 개수가 많다고 추론할 수 있죠.

표상한다는 것은 '글이 담고 있는 것'을 뇌 안에서 모델링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개념이라면 구체 개념일수록, 구체성이 클수록 표상하기 쉽습니다. 구체 개념이 나오든 추상 개념이 나오든 구체성을 키워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 개념을 구체 개념으로 바꾸어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능 국어는 사고력 시험이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표상 또한 사고라고 볼 수도 있고 앞에서 말했듯이 추론, 연결, 비판도 사고의 일종이고 기억, 계산, 분석, 조합, 창의적 적용 등 사고의 외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능 국어에서 요구되는 사고는 다양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 문제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능 국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항상 반드시 필요한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독해에 대한 저의 정의, '독해란 문자로 이루어진 글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글이 담고 있는 것을 표상하고 **사고**하는 정신적 작용이다.'를 '독해란 문자로 이루어진 글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글이 담고 있는 것을 표상하고 **연결**하는 정신적 작용이다.'라고 바꾸어 이해해도 될 정도로 연결은 독해의 필요조건입니다. 연결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독해의 또 다른 필요조건인 표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 PART 01

## 표상하기

표상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도약 독해

표상이 안 될 때는 물음표 띄우기

기억이 안 될 때는 암기 시도하기

## 표상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도약 독해

도약 독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이 섹션은 문장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문법적인 답안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을 치를 때 혹은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글을 읽을 때 글자가 눈에서 튀겨 나가는 듯한 경험을 겪어본 독자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수차례 겪어보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도약 독해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의 문장은 단어로 나눌 수 있고, 단어는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한 단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4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라는 한 단어는 '책'이라는 1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죠.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형태소는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형태소는 어휘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입니다. 형식형태소는 문법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입니다. 형식형태소는 실질형태소와 함께 쓰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실질형태소는 '나, 오늘, 밥, 먹-'이고, 형식형태소는 '-는, -을, -었-, -다'입니다. 형식형태소를 독립적으로 표상하려고 시도해 보면 표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형태소를 독립적으로 표상하려고 시도해 보면 표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오늘', '밥'은 표상이 되지만 '먹-'은 표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비록 실질형태소 하나만으로도 표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장을 원활히 독해할 때를 생각해 보면 문장을 형태소마다 끊으며 읽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장을 형태소 분석을 하면서 그 전체를 표상하려 한다면 잘 되지도 않고 매우 비효율적인 독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장을 어떻게 독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문장을 적절한 텍스트 단위로 끊어가며 읽습니다.

적절한 텍스트 단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실질형태소는 그 자체로 표상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형태소마다 끊어가며 읽지 않죠. 적절한 텍스트 단위란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독립적으로 표상이 가능한 적당한 텍스트 단위를 말합니다. 적절한 텍스트 단위는 문장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가 너무 작아도 혹은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위가 너무 작으면 문장 자체를 조합했을 때 문장 초반부에 표상한 것을 잊어버려 조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단위가 너무 크면 대충 읽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단위 크기가 적절할까요? 예를 들어,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건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문장을 독해해봅시다. 적절한 텍스트 단위는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일반 사용자가 /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 건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적절한 텍스트 단위는 문장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단위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텍스트 단위를 숙 읽고, 넘어가서 그다음 단위를 숙 읽고, 이러한 과정을 문장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마지막엔 문장 전체를 조합하여 표상하는 것이 마치 도약하는 것 같아서 적절한 텍스트 단위로 끊어가며 읽는 것을 '도약

독해'라고 명명했습니다.

많은 수의 독자들이 이미 도약 독해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독자들이 있다면 도약 독해를 의식적으로 연습하시길 권장드리고 이미 도약 독해를 체화했다더라도 혹여나 긴장된 상황 속에서 글자가 튀겨져 나간다면 의식적으로 도약 독해하여 최약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 표상이 안 될 때는 물음표 띄우기

도약 독해를 하는데도 표상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수도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약 독해는 일종의 문법적인 해결 방안이고 이런 경우는 의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표상이 잘 안되는 문장을 해결하지도 않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결국 그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물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섹션은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다룹니다.

'물음표 띄우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물음표 띄우기'를 왜 하는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란 이 텍스트만으로는 뇌 안에서 정보를 모델링할 수 없는 텍스트를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사과'

'사과'는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일까요? '사과'라는 텍스트만으로 우리는 뇌 안에서 사과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 '클라이버의 법칙'

이건 어떤가요?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을 풀어본 사람이라면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표현만으로 뇌 안에서 '클라이버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뇌 안에서 정보를 모델링할 수 없을 겁니다.

###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해 포인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 문장, 이해가 가시나요? 컴퓨터 과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문장은 왜 이

해가 안 갈까요?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가 문장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일리어싱'과 '포인터'는 이 텍스트만으로는 뇌 안에서 정보를 모델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물음표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가 나올 때 '나중에 이에 대해 설명하겠지' 하고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에 대해 지문이 끝날 때까지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는 위의 예시처럼 모르거나 생소한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텍스트도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에 포함되고, 인과관계를 제시했으나 중간 과정이 제시되지 않아 표상이 안 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보통 모르거나 생소한 텍스트의 경우 나중에 정의나 설명이 제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혹은 모르거나 생소한 텍스트의 경우에도 나중에라도 정의나 설명이 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요? 왜냐하면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에 대해 맥락이나 텍스트의 표현 혹은 배경지식 등의 단서들을 토대로 추론이 가능한 경우 평가원이 이를 알고 따로 정의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죠. 이때 적극적으로 추론한 학생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서 지문 전체를 이해하여 문제를 맞히고, 그냥 넘어간 학생은 이를 모르고 넘어가서 지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가 나올 때 '나중에 이에 대해 설명하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 정의나 설명이 제시되지만 너무 나중에 나오는 경우 표상이 안 됐던 텍스트가 포함된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그 문장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되돌아가는 과정을 못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에 대해 이것이 문제 상황이라고 명확히 인식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물음표 띄우기'를 왜 하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 이제 '물음표 띄우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 중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모르거나 생소한 텍스트
- 추상적인 텍스트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는 모르거나 생소한 텍스트, 추상적인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제시하여 표상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텍스트에 전제를 숨겨 놓아서 표상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인과관계가 등장했는데 원인과 결과 사이의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표상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단어의 표현과 설명이나 정의가 잘 대응되지 않아 표상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표상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공통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를 띄운다.

두 번째, 주어진 단서들을 통해 최대한 추론한다.

물음표를 띄운다는 것은 문장을 읽어도 표상이 안 될 때 ‘이게 뭐야?’, ‘이게 된 소리야?’, ‘왜 그렇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음을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물음표를 띄움으로써 표상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텍스트에 대한 기억 또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도 이에 포함되죠. 즉 문장 내에서 표상이 안 되는 텍스트를 찾아내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단서들을 통해 최대한 추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맥락이나 단어의 표현, 배경지식 등의 단서들을 통해 던진 물음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문장에서 물음표를 띄웠다면 주어진 단서들을 통해 최대한 추론하는 과정은 일차적으로 **그 문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그 문장을 넘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문장에서 물음표를 띄웠다면 일차적으로 그 문장 내에서 주어진 단서들을 통해 최대한 추론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차적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글의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미 추론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 일차적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손쉽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문을 읽어봅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2017학년도 수능 발췌

두 번째 문단을, 표상이 안 되는 부분에서 물음표를 띄우고 일차적으로 그 문장 내에서 주어진 단서들을 통해 최대한 추론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 '고지 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고 물음표를 띄울 수 있다.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려나'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 '중요한 사항이 뭘까?'라고 물음표를 띄울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생명 보험이면 지병 관련 정보겠네'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두 번째 문단을 처음 읽을 때와, 물음표를 띄우고 일차적으로 그 문장 내에서 주어진 단서들을 통해 추론하며 읽을 때는 글의 이해의 정도가 확연히 다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 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018학년도 9월 모평 발췌

##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지문을 읽을 때 ㉠에 대해 물음표를 띄우고 일차적으로 그 문장 내에서 주어진 단서를 통해 최대한 추론한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라고 물음표를 띄울 수 있다.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다가 당신이 달을 본 후에야 달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관찰이 상태 혹은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말이겠군”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